

‘살아 숨쉬는 자’ 조영래가 남기고 간 역사의 귀적들

이광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사료

흔히 세상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어디 세상이 내 마음과 같은가라는 말도 자주 한다. 그리고 이 말들은 이 세상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니 너무 튀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하지만 이 말들을 한 꺼풀 벗겨보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회관계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사회세력들 사이의 모순과 긴장, 갈등과 적대가 심화되는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는 행위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고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주

변에서 이런 삶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사회적 약자를 옹호한 삶 보여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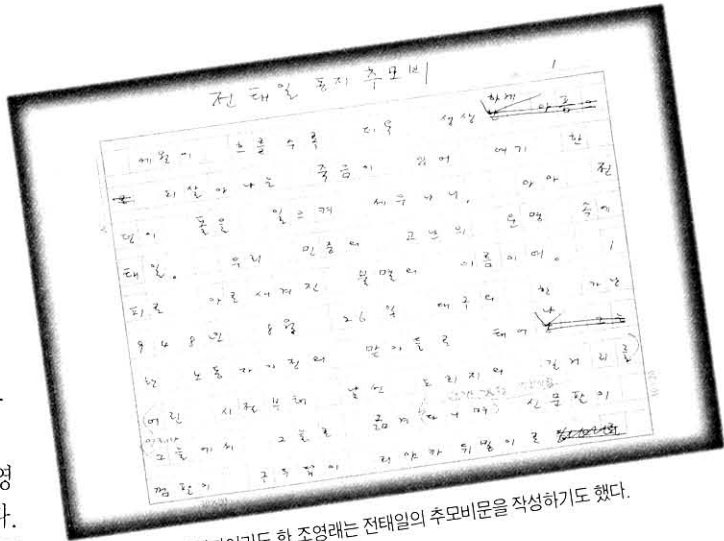
여기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변호사이고 그의 벗들은 노동자, 빈민,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가 바로 조영래다. 그의 이력을 다시 들추는 것은 지면의

낭비이다. 애초 그는 '지식인 친구가 없음' 을 아쉬워하며 불꽃같은 생을 마감한 노동자 전태일에게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평전을 집필하여 익명으로 '현정' 함으로써 그와 영혼의 동지가 되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실제 그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변론 등 '가난한 자들'의 생존과 인간적 삶을 옹호하는 실천적 활동을 쉬 없이 이어갔다. 그리고 결국 전태일이 그랬던 것처럼 90년 마흔 넷의 이른 나이에 불꽃같은 삶을 마감하였다.

이번에 이옥경(미즈엔 대표)여사가 남편 고 조영래 변호사가 남겼던 관련 서류들을 기증해 주셨다. 물론 이 자료에는 조변호사 개인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난한 자'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살다간 그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인데 그 대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창시절 성적표, 노트도 있어

우선 개인의 기록으로 재미나는 것은 경기중·고등학교 시절의 성적표, 시험지, 학습노트 등이다. 이 자료는 그가 공부는 잘 하였지만, 또래의 여느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노트에는 군데군데 그려진 누군가의 얼굴 스케치와 낙서, 진학을 앞둔 고3, 그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에게 쓴 듯한 편지의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이 자료는 그의 생애사를 구성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사법연수원시절 민사실무 교육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 등도 원본으로 희귀사료이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모란 공원 전태일 열사 추모비를 위해 200자 원고지에 작성한 육필원고인데,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전태일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밖에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관한 원고 등이 포함되어



전태일 평전의 집필자이기도 한 조영래는 전태일의 추모비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있다. 부천경찰서 권인숙 양 성고문사건 관련 서류들에는 권양 접견록, 변론 요지서, 고문 경관 문귀동 등에 대한 고발장과 제정신청서,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종 2차 자료들이 들어 있다. 당시 필자에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회의를 느끼게 했던 권양 변론 요지서의 날카로운 감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다. 이 변론 요지서는 전두환 정권의 종말에 확신을 갖게 해준 역사의 증거이기도 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사건 관련 서류에는 정부의 발표를 반박하기 위한 조영래 변호사의 육필 메모, 대한변협 특별조사단의 반박 성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문자들을 처단하라'는 원고는 이 사건들에 대해 그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6월항쟁 이후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서류에는 6·29선언으로 탈군부 민주정부수립의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두 김씨가 분열의 길을 걷자 이를 비판하고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키고자 한 각종 성

명서, 보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분열 상황은 두 김씨 개인의 결단문제로 축소시킬 수 없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들 자료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끝없는 열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열정 느껴져

마지막으로 망원동 수재민을 위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관련 자료에는 각종 공판사료들과 망원동 주민들이 조영래 변호사에게 증정한 감사패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활동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중심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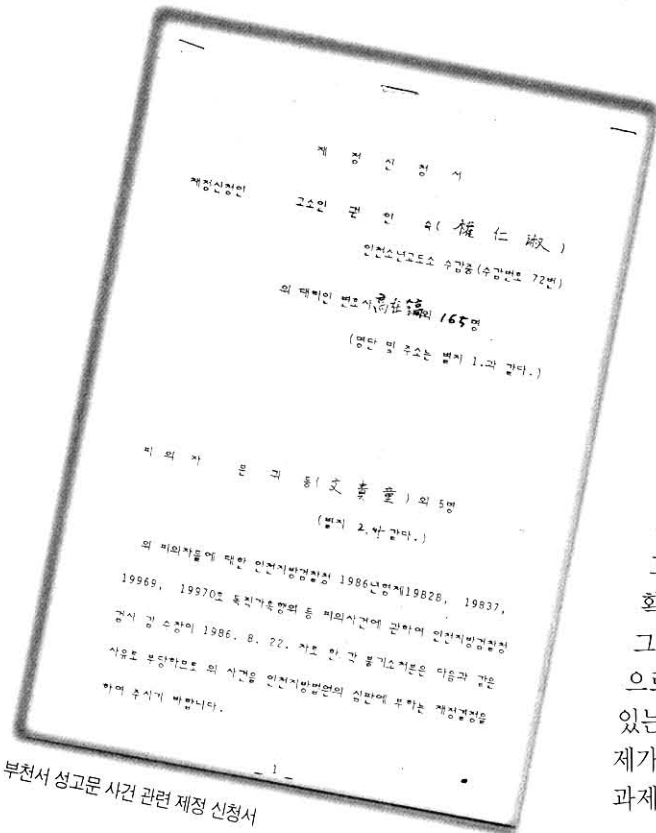
한 것이기는 하지만, 조영래 변호사가 인권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일상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관여해 왔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인간은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후세대가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여백을 만들고 떠나기를 바란다. 그것이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백이라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기증받은 자료들은 변호사 조영래 개인사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 자료들 대부분은 그의 개인사와 구별되지 않는다. 그것은 조영래 변호사의 삶 자체가 약자의 존재 자체를 질곡시키는 사회관계들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치유하기 위한 삶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그가 만든 여백은 아름답다.

흔히 우리는 '살아 숨쉬다'는 말을 주고받지만, 그 의미는 아무 때나 입에 올릴 수 있을 만큼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런저런 예식에서 무심코 되뇌이는 일상의 수식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 무게는 말 그대로 여백을 남기고 간 사람들의 진정성과 그 여백 위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성이 어우러지는 점점에서만 진정한 빛을 발한다.

이런 맥락에서 조영래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역사의 궤적에, 그리고 그 흔적들에 '살아 숨쉬다'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결코 어색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주춤거리게 되는 것은 그의 삶을 잊겠다는 우리가 그 말의 무게를 지고 갈 만큼 삶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는 우리에게 박물관의 골동품이 아닌, 현실의 채찍으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진정 그를 역사화시킬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그가 남긴 사료들은 바로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실천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부천시 상고문 사건 관련 제정 신청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수많은 민주주의 전령들의
 삶과 투쟁과 죽음을
 온전히 복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간 지속될
 「시대의 불꽃」 발간 사업은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자산,
 그리고 열사들의 삶이
 미래를 여는 힘으로
 되살아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